



‘아르헨티나 수출 1위 트라피체 와이너리의 아이덴티티 1883’

트라피체 에스타시온 1883 말벡

TRAPICHE ESTACION 1883 MALBEC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 우코 밸리		
포도품종	말벡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신선한 과일 아로마와 약간의 미네랄 노트가 느껴지는 바이올렛 향을 느낄 수 있다. 강렬한 체리 아로마와 블랙 페퍼노트도 느낄 수 있으며, 입안에서는 둥글고 긴 우아한 피니시가 느껴진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해산물/ 익힌 채소/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트라피체가 설립된 1883년과 그 당시 유일한 수출 경로였던 기차역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와인이다. 이 기차역을 통해 프리미엄 말벡 생산을 위한 포도 유반 등 트라피체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와인 레이블의 기차역은 현재까지도 트라피체 와이너리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트라피체 와이너리에서 새로 선보인 에스타시온 1883은 설립이라는 의미의 '에스타시온' 그리고 1883년의 숫자를 담아 트라피체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9빈티지 디칸터 Decanter 91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서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카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비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